

화려한 언어 대신, 소박한 일상 이야기 풀다



나주 작은미술관 개관 2년차 기획초대전
29일까지 나주정미소 내 전시관 4, 5동서
구승희·김태형·윤기원 등 3명 51점 출품

주시를 대표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음성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주관으로 '작은 미술관 조성 및 운영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이 공간은 지자체가 소유한 유휴 공간을 활용해 지역 밀착형 상설 소규모 미술관을 조성,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재생시킨 성공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다. 2024년 개관 이후 짧은 시간 동안 지역 문화예술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한 호남 최초의 정미소 기록되고 있는 나주정미소 내 작은미술관이 그곳.

에서 연다. 출품작은 총 51점. '수줍은 고백, 평범한 날들의 특별한 이야기'라는 타이틀로 열리고 있는 이번 전시는 각각 다른 시선과 화법으로 '평범한 일상 속 특별한 순간'을 포착해 관람객이 자신의 일상과 기억, 감정을 조용히 되돌아보는 시간을 선사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주제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거창하거나 화려한 언어 대신, 소박한 일상과 조용한 시선을 통해 감정을 전하는데 치중하고 있다. 각 출품작들은 개인적 기억에서 출발하지만 결국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확장되고 있다. 전시에는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광주



작가들과 내빈들이 지난 3일 열린 개막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출생이지만 현재 서울을 연고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구승희, 김태형, 윤기원씨 등 세 명의 작가가 출품했다. 이들은 저마다 일상의 이야기를 다루는 작가들이다. 구승희 작가는 전남대에서 미술 공부를 한 작가로 중국 갤러리 소속이며, 중국 현지에서 핫한 작가로 통한다. 가족과 친구, 주변 풍경과 소소한 대화 등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를 그리지만 행복

이라는 감정을 포착해낸다. 작품은 매우 디테일한 작업들이 눈에 띈다. 김태형 작가는 '육아를 하는 작가'로 아이가 가지고 놀았던 자동차 등 장난감을 오브제로 해 작업을 했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오브제들은 공포나 불안, 우울과 웃음, 유희의 감정들을 투영하고 있다. 그의 작품은 치유와 유희라는 메시지를 던진다.

윤기원 작가는 자신과 관계된 인물들에 주목한다. 이를테면 인연을 화면에 투영한다. 그림 안 인물은 주로 여성들로 이미 지나가 버린 그들의 과거를 통해 그들의 삶을 관찰한다. 색감은 매우 컬러풀하고 선명하다. 어떤 세세한 묘사보다는 굵직하게 접근, 표현하는 것을 선호하는 듯하다. 김현희 총괄 큐레이터는 "이번 전시는 단순히 작품을 나열하는 자리가 아니라, 삶과 예술이 교차하는 따뜻한 교감의 장"이라며 "세 작가의 시선이 모여 하나의 서정시처럼 관람객에게 다가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작은미술관은 지난해 개관전 '흔한 동네 풍경-정미소'전을 연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31일까지 '리듬감각: 렉키세븐'전을 성황리에 진행했다. 그림세상과 목사골 풍류회 등 주민생활문화동호회 25개팀이 나주시 문화예술과 지원에 근거해 선정, 이곳 정미소(5개동)를 배경으로 요일별 모임을 꾸리고 있으며, 이들이 작품 관람객이 되고 있기도 하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수려한 '남도풍경' 보며 생생한 감동 느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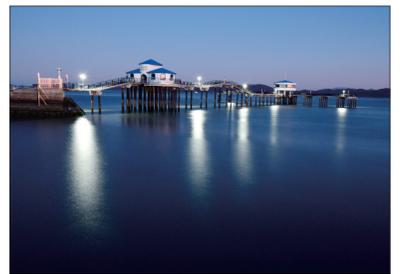
남도풍경연구소 '그림같은 남도풍경이야기' 사진전
13일부터 광주시청 1층 시민홀...초대작 50여점 선봬



정중락 작 '황금빛에 물든 가을아침'(담양)

남도풍경연구소(소장 최근영)는 그림같은 남도풍경 이야기 개설 10주년을 기념해 전국의 사진작가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전시회를 연다고 9일 밝혔다. 광주·전남·북의 고유한 자연미를 오롯이 담은 온라인 밴드 '남도풍경'은 광주시와 전남도, 전북도, 신안군, 장흥군, 구례군 등의 후원으로 '2025 그림같은 남도풍경이야기 제3회 사진전'을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광주시청 1층 시민홀에서 갖는다. 출품작은 일반 전시회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초대작 50여점. 이번 전시는 '대중에게 다가가는 남도풍경'이라는 주제 아래, 전문 전시장이 아닌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을 택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초대작들인 만큼 관람객이 작품 속 풍경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가는 듯한

생생한 감동을 느낄 것으로 기대된다. '남도풍경' 밴드는 지난 10년간 광주·전남·북의 숨은 비경과 계절의 흐름을 찾아 기록해왔다. 단순한 사진 공유를 넘어 장소별 최적의 촬영 시기와 위치,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사진가와 여행자 모두에게 '가장 신뢰받는 풍경 안내서'로 자리매김했다. 현재 '최근영의 그림같은 남도풍경이야기' 밴드에는 전국 8100여명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전문 사진동호회 25만여명에게 매일 신선한 정보를 제공 중이다. 연구소에는 28명의 연구위원과 30명의 홍보 서포터즈가 활동하며, 남도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최근영 소장은 "남도풍경은 단순한 사진 모음이 아니라,



송상진 작 '바다 이야기'(보성)

지난 10년 동안 광주·전남·북 지역의 명소를 발굴하고 이를 불리는 문화적 기록자로 활동해왔다"며 "이번 전시회는 보기 드문 초대작 작품들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공인디자인전문회사

회사 홍보를 고민하십니까? 다큐디자인으로 오십시오



다큐디자인은

- 사보, 사사, 회보, 지명원 등 회사 홍보를 위한 기획, 제작 전문 회사입니다
- 기획부터 취재, 원고작성, 사진촬영, 출판까지 One-stop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런 일을 하실 분들은 연락주십시오!!

- 사보, 사사, 단체사, 회보, 지명원 등 기록물 간행을 원하시는 분
- 자서전, 회고록, 시집, 수필집, 소설, 사진집 등 단행본 출판을 원하시는 분



DOCUdesign
다큐디자인 DOCU

광주광역시 동구 백서로 125번길 6(금동) T. 062)529-7107 M. 010. 8345. 0103